

BREAKINGBARRIERS

everybody belongs ■ everybody serves

장애를 넘어서, 모두가 속하고 모두가 섬기는

<장애를 넘어서>는 북미주 개혁교회 (CRC)와 미국개혁교회 (RCA)의 장애우 사역부에서 발행하는 계간 소식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들이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함께 치워갑니다.

번역자 주: 이 계간 소식지 영문 제호 <Breaking Barriers>의 한국어 번역은 과거 <장애물 헐기>로 번역해왔지만, 이번호부터는 긍정적인 표현을 담은 <장애를 넘어서>로 변경하여 발행합니다.

2019년 가을호- 청각장애 및 난청

청각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를 지닌 가족과 함께 사는 필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청각장애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경험을 나눕니다.



인공 달팽이관과 수화와 목소리

앨리슨 브리엔드,
오리건 주 살렘, 서니슬로프 북미주 개혁교회

세 살 된 제 딸 알레나는 양측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수화를 통해 의사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기적적인 이야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알레나는 임신 25주만에 태어났고 몸무게는 1파운드였습니다. 저는 2016년 3월 6일에 임신증독증 진단을 받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알레나는 생후 첫날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갈 만큼 위급했지만 그 뒤 221일 동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알레나는 다양한 호흡 보조기에 의지하였고, 5개월이 지났을 때는 기관절제관을 삽입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어린 딸을 돌보시며,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기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여러 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알레나는 청력검사에 불합격하여 몇 주 후에 더 많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환자에게 종종 발생하는 것처럼, 양쪽 귀에 심각한 청력손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레나가 한 살이 조금 넘었을 때, 인공와우를 이식했고, 이로 인해 알레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공와우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레나가 어려서 인공와우를 이식받은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알레나는 말하기와 언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알레나에게 수화를 가르치며 알레나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알레나는 새로운 단어를 빠르게 배웁니다. 알레나의 인공 와우는 음성 언어와 수화를 연결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알레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래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알레나는 올해 초 기관절개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성대 중 하나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관절개관을 제거한 후, 알레나는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알레나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모두 언제나 신속히 도와줍니다.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레나의 이야기와 함께 합니다. (www.facebook.com/alenaraevriend)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알레나가 겪는 모든 과정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와 위안이 됩니다.

알레나는 자기 또래 세 살 짜리 아이들보다 인생의 풍파를 더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기도의 힘은 알레나의 삶속에서 명백히 나타나며, 인공와우 이식이 알레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삶을 갈망하며

존 M.V 쿨, 북미주 개혁교회 은퇴목사
온타리오 주 스트라트로이

저 는 어릴 때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할머니도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과부가 되어 40년 동안 세 자녀를 기르다가 할머니는 예배 참석을 중단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마일을 걸어간 교회에서 할머니는 과연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의 편지를 보면 할머니는 항상 폐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청각장애가 할머니를 무기력하고 폐쇄적이게끔 몰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할머니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차를 타지도 않고, 자신의 집안에서만 가족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제 형은 귀 뒤의 뼈 유방골 수술을 받았고, 나는 십대 때 만성 유방염을 앓았습니다. 학교 청력검사에서는 왼쪽 귀의 청력이 좋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자리를 확보하는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마침내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사람들이 저의 안 들리는 왼쪽 귀에 대고 속삭이는 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제 왼쪽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가대에서도, 저는 다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불러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잘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을 듣든지, 그게 하도 시끄러워서, 동네 전체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이 마이크 뒤로 나란히 서면, 나는 나의 보청기를 꺼야 합니다. 그러면 오르간 소리가 커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란히 서 있는 마이크는 나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부르면 괜찮지만, 여러 명이 나란히 서서 부르면, 마이크가 그들의 얼굴을 가려서, 눈과 입을 통한 신호를 읽을 수 없게 합니다. 결과는 불협화음이죠.

제 할머니는 교회에서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예배 스타일, 건축 등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의견을 물는 것을 잊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할머니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훌륭한 두거나 폐쇄적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다른 사람들과 풍성한 교제를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장애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Rayas family

수화는 청각장애인만 위한 게 아닙니다.

호세 라야스 목사,
텍사스 주, 소코로, 벌리 릿지 커뮤니티 개혁교회

격 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인해 수화(ASL)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으로서, 우리 가족과 교인들은 모두 수화를 배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아이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혜택은 이 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에 ESL 수업을 합니다. 이 수업에서 우리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수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시간을 내어 영어와 수화를 배우게 되었으며, 이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 주었을 뿐 아니라 구직에 유리한 능력을 더 갖게 했습니다. ESL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우리 가족을 방문할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까 하는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수화는 확실히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기타 온라인 포맷

bit.ly/BBfall2019 네트워크 웹사이트의 “장애를 넘어서”로 가시면 이번 호를 다양한 버전으로 (인쇄하기 쉬운 판형, 오디오, 스페인어, 한국어 등)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큰 도움이 됩니

신디 벨드히어 데영
미시건 주 휠랜드, 소망 미국개혁교회

대 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사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회는 교제하고 친구를 사귀며,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예배 후 친교 시간이나 매월 교회의 피자파티를 황급히 피하려고 할까요? 저는 제 에너지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소음이 만드는 불협화음을 듣기에 매우 힘든 환경이기에, 몇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네 살 때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대 초반부터 보청기를 착용했습니다. 보청기는 저에게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부분은 아주 잘 듣습니다. 아이들이 내지르는 소리대의 음역에서는 내 청력이 매우 정상적이라고 검사기가 말해줍니다. 그러나 복잡한 찬송가의 음정을 들을 때는 내가 올바른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저는 교회와 목사님이 다음 두 가지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 저에게는 듣고 경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피곤해졌을 때,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잘 들으려고 노력하다보면,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곤할 때 잘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2.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번에 명확하게 한 번에 하나씩 말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말 끊고 끼어들기를 자제하도록) 도움을 요청드릴 때,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 중에 한 분이 손으로 턱을 괴고 말을 할 때,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을 하면, 제 뇌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할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분이 나를 대신하여 “잠깐만요. 한 사람씩 말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는 “입술을 읽을 수 있도록 얼굴을 가리지 맙시다.”라고 말해 준다면, 청각 장애인이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고” 대화를 위해서 나를 따라 다른 방으로 옮을 때 저는 안심하며 고마워합니다. 제가 더 쉽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모임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제 보청기가 잘 작동하도록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마주 보는 것과, 할 말을 한 뒤에, 제 반응을 보기 위해 잠시 기다려 주는 것이 기쁩니다.



© Cindi Veldheer DeYoung

다음호 주제

2019년 겨울호 - 약물

많은 사람들이 통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경련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부작용도 유발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가까운 이들 가운데 장애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 복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400단어)를 9월 3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2020년 봄 - 시각장애

여러분 중에 시각장애를 겪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교회 활동에 참여하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400단어) 2월 3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사역에 참여하시려면

장애인 사역부를 위한 재정적 지원 없었다면 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속하고, 모두가 섭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후원은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원 그 자체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순종의 표현입니다.

RCA 장애인 사역부를 후원하시려면: www.rca.org/give/disabilityfund

CRC 장애인 사역부를 후원하시려면: www.crcna.org/disability 로 가셔서 “Donate”를 클릭하십시오.

청력 장애인을 위한 배려, 교회가 선도합니다.

데이비드 마이어
미시간 주 휠랜드, 소망 미국개혁교회

당신이 심각한 청력 손실을 입은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나 영화관에서, 당신은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두 가지 보조 청취 옵션이 제공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리를 전달하는 특수 헤드셋을 찾고, 확인하고, 착용하고, 반납하기 위해 수고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보청기를 무선 스피커로 변환하여 자신의 청력을 보정하는 버튼을 은밀하게 누르시겠습니까?

첫번째는 북미주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조 청취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보청기와 호환되는 보조 청취장치로 영국과 북유럽의 예배 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점차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교회 및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미국에서 루프가 있는 장소를 찾으려면 www.loopfinder.com을 참조하십시오. (비슷한 캐나다 웹사이트를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다행하게도, 많은 지역에서 교회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소리에 편리하게 접근하게 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청각 루프 시스템을 주장하는 줄리엣 스터켄스 박사는 그녀가 사는 위스콘신주에서 www.loopwisconsin.com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의 한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루프 시스템이 작동된 첫 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마치 목사님이 내 귀에 직접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도들을 둘러보니 보청기를 쓴 다른 사람도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그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세상문화를 뒤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는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earingloop.org이나 www.letsloopcanada.ca를 참조하십시오).

2011년 봄 <장애를 넘어서>, 데이비드 마이어의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편집자 주

듣기에 빠르게 되기



저는 청소년 시절, 귀가 찢어질듯한 콘서트에 갈 때부터 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모든 곳에 청력보호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몇 년 전, 저는 매우 소란스럽고 심대들로 꽉 찬 콘서트에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 나이와 주황색 청력보호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나를 공통처럼 희한하게 쳐다봤지만, 나는 내 청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청력을 잃지만 청력 상실은 거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장애입니다. 비록 안경은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보청기는 그러한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보청기는 늙고 노쇠한 것과 동일시하는 문화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기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력 감소는 북미 인구의 10퍼센트 이상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네트워크 웹사이트 (network.crcna.org/disability)에서는 인쇄된 설교문 배포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노래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입술을 볼 수 있게 확인하거나, 공개 회의나 예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마이크를 사용하며, 청각 보조기술 특히 청각 루프를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들이 예배 및 기타 교회활동에 더 쉽게 접근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호에 실린 존 쿨의 글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한 후, 우리들 중 일부를 소외시키지 않는 예배 방법을 찾아내는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몸은 귀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하지 못하리라. 뿐 아니라 몸의 약해 보이는 자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린도전서 12:22, 개역한글).

—마크 스티븐슨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국개혁교회가 함께 섬기는 장애우사역 crcna.org/disability • rca.org/disability

© 2019년 CRC/RCA 장애인 사역부
<장애를 넘어서>는 CRC 장애우사역부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및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와 RCA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의 CRC 장애우사역부 디렉터 마크 스티븐슨 목사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와 RCA 장애우사역부 코디네이터 테리 드영 목사 (616-541-0855; tdeyoung@rca.org)가 퍼내는 계간지입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전재와 재배포가 가능합니다.